

## The Mediating Effects of Test Anxiety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stery Approach Orientation and Academic Adjustment in Undergraduate Students

Moon, Hwa-Jin<sup>1)</sup> (Sookmyung Women's University, Lecturer)

---

< ABSTRACT >

---

This study is an empirical study to confirm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 of test anxiety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stery approach orientation and academic adjustment in undergraduate students. To this end,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for 240 undergraduate studen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higher the mastery approach orientation, the lower the test anxiety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and the higher the academic adjustment. Second, the mediating effect of test anxiety was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stery approach orientation and academic adjustment. That means as mastery approach orientation increased, test anxiety decreased, and as a result, academic adjustment increased. Third, the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procrastination was significant. That means as mastery approach orientation increased, academic procrastination decreased, and as a result, academic adjustment increased. Fourth,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 of test anxiety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was significant. This means that as the mastery approach orientation increases, test anxiety decreases, and decreased test anxiety improves academic adjustment by making less academic procrastination. Based on these results, it was discussed that the university environment, as well as undergraduate students need to pursue changes so that they can reduce worries or anxiety about academic evaluation by aiming for mastery-oriented education to improve the academic adjustment of students and reduce intentional procrastination due to fear of negative feedback in academic performance.

**Key Words** : Academic adjustment, mastery approach orientation, test anxiety, academic procrastination, undergraduate students

---

---

1) Author: Moon, Hwa-Jin, Lecturer, Sookmyung Women's University, Cheongpa-ro 47-gil 100, Yongsan-gu, Seoul, Korea, 04310 / E-mail: mhj961210@gmail.com

## 대학생의 숙달 접근 지향성과 학업 적응의 관계: 시험 불안과 학업 지연 행동의 매개효과

문화진<sup>1)</sup> (숙명여자대학교, 강사)

---

### < 요약 >

---

이 연구는 대학생의 숙달 접근 지향성과 학업 적응의 관계에서 시험 불안과 학업 지연 행동의 순차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대학생 24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숙달 접근 지향성이 높을수록 시험 불안과 학업 지연 행동은 감소하고 학업 적응은 증진하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숙달 접근 지향성과 학업 적응의 관계에서 시험 불안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여, 숙달 접근 지향성이 증가할수록 시험 불안이 감소하여 학업 적응이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셋째, 숙달 접근 지향성과 학업 적응의 관계에서 학업 지연 행동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여, 숙달 접근 지향성이 증가할수록 학업 지연 행동이 감소하여 학업 적응이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넷째, 숙달 접근 지향성과 학업 적응의 관계에서 시험 불안과 학업 지연 행동의 순차 매개효과가 유의하여, 숙달 접근 지향성이 증가할수록 시험 불안이 감소하고, 감소한 시험 불안이 학업 지연 행동을 적게 하도록 만듦으로 학업 적응을 증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숙달 지향적 교육을 지향함으로써 학업 평가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을 감경하고, 학업적 수행에서 부정적 피드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의도적 지연 행동을 감소할 수 있도록 대학생뿐 아니라 대학 환경 또한 변화를 추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학업 적응, 숙달 접근 지향성, 시험 불안, 학업 지연 행동, 대학생

---

1) 저자: 문화진, 강사, (04310)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 숙명여자대학교 / E-mail: mhj961210@gmail.com  
논문투고일자: 2023. 11. 21 / 심사일자: 2023. 11. 23 / 게재확정일자: 2023. 12. 11

## I. 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은 큰 도전에 직면하여 있다. 무엇보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등으로 인한 신입생 충원과 재학생 보유율 감소 등은 많은 대학의 존립 문제를 논의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대학 입학 학령인구의 감소는 2012년 69만 명에서 계속하여 감소하여 2030년에는 41만 명 선으로 급감하리라 전망되고 있어 이제 대학은 신입생의 충원뿐 아니라 재학생의 보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Cho et al., 2020). 즉 재학 중인 대학생이 학교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 중도 탈락하는 것은 국가적 관점의 인적 자원 육성 및 관리에 실패하는 것이며 대학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및 질적 내실화를 확보하지 못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실제 최근 대학의 충원율과 함께 보유율, 중도 탈락률 등도 대학의 질적 평가 핵심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자기 적성에 맞는 전공 및 진로를 탐색하고, 이와 관련한 학문적 지식을 함양하는 인생 설계 과정 중 일부로 인식하고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것은 학생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기관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2023년 교육기본통계’ 조사에 따르면 2022년 4년제 대학과 전문대, 교대 등 전체 고등교육기관에서의 학업 중단율은 7.2%에 달하였다. 이는 2012년 이후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재학 학생 수와 졸업생 수 역시 계속하여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다. 이에 대학생의 학업 중단과 관련한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졌으며, 대부분 연구에서 학업 중단의 주요 배경에는 평점, 학사 경고 횟수, 학적 및 전공 변경 의도 등과 같은 학업 관련 영역에서의 적응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Jo, 2023; Moon & Jo, 2023). 즉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이 정원에 대한 관리와 교육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고, 대학생은 사회에서 필요한 인적 자원으로 육성되도록 돕기 위해서는 학업 적응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업 적응이란 대학생이 재학 중인 대학 혹은 특정 학과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학업적 요구와 기대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부응함으로써 적응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Cho et al., 2020; Clinciu & Cazan, 2014). 대학생의 학업 적응에는 수업 참여, 과제 수행과 시험 참여, 좋은 학점과 전공 만족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학업 적응은 대학 생활 적응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동시에 대학 생활의 성공적 완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Jo, 2023; Moon & Jo, 2023). 이에 따라 대학생의 학업 실패 요인을 최소화하고 학업 수행에서의 적응 향상을 증진하는데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Kim & Cho, 2013).

비교적 수동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졌던 초·중·고등학교 시기와 달리 대학 학습 환경은 자발성과 주체성이 학습 목표 수립과 계획, 실행에 있어 상대적으로 더욱 크게 요구되며, 대학에 진학한 이후 이렇게 변화한 학습 환경에 대한 적응에 실패하는 경우 학업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후 학업 실패, 나아가 중도 포기나 탈락 등과 같은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Kim & Jeon, 2014; Yu et al., 2022). 이런 점에서 대학생의 학업 적응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증진 혹은 저해하는 요인을 탐색하여 그 영향력을 확인해 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대학생의 적응, 특히 학업 적응에는 이들을 둘러싼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무엇보다 학업적 기대나 요구에 대하여 얼마나 부응할 수 있는가는 대학생 스스로가 가진 학습 관련 동기나 목표 및 목적에 대한 명확한 인식, 학업 관련 정서, 학습에 대한 태도나 행동, 또는 습관 등과 특히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다(Cho et al., 2020; Kim & Cho, 2013; Kim & Jeon, 2014). 학업 기대 및 요구에 대한 반응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것은 학습자가 학습 자체에 대하여 어떠한 동기나 목표를 가지고 임하는가를 의미하는 성취 목표 지향성이다(Moon, 2023). 성취 목표 지향성이란 학업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지향하는지에 따라 도출되는 반응을 의미하는 동기 양상으로 학업 과정에서 개인의 목적이나 태도를 결정한다(McGregor & Elliot, 2002; Oh et al., 2022). 이는 크게 학습 과제의 통달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자기의 유능성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는 숙달 지향성과 남들보다 능력이 높음을 입증하거나 능력이 낮다는 평가를 피하려고 학습을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수행 지향성으로 구분한다(Kim & Kang, 2020). 숙달 지향성이 높은 학습자는 도전적 과제를 선호하며 노력에 초점을 두며 학습 실패에도 쉽게 좌절하지 않는 것과 달리, 수행 지향성이 높은 학습자는 실패를 두려워하며 도전을 피하고 과제 난이도가 향상하면 수행에 비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Oh et al., 2022).

이런 점에서 일반적으로 수행 지향성보다는 숙달 지향성이 학습 동기로서 더 긍정적인 지향성으로 인식되며, 특히 유능함을 계발 및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정 과제의 수행 시 숙달 자체에 중점을 두며 외적 보상보다는 학습 과정 그 자체에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는 학습자의 특성인 숙달 접근 지향성을 학업 적응이나 성취를 위한 이상적 동기로 간주한다(McGregor & Elliot, 2002; Moon, 2023). 숙달 접근 지향성이 높은 학습자는 학습 과정에서 완전 학습을 추구하며, 학습의 목표를 자기의 유능감 개발이나 발전 및 진보 등에 두어 외적 보상이 없어도 학습하는 그 자체에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크다(Kim & Kang, 2020). 따라서 학습 과정에 더욱 몰두하게 만들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도움으로 높은 학업적 성과를 도출하게 만든다(Noh et al., 2021). 실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 Jeon(2014)의 연구에서 숙달 접근 경향이 높은 경우 더 우수한 학업 성취가 나타났으며, Kim & Cho(2013)의 연구에서는 숙달

접근 지향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며 학업 성취도 또한 더 높은 경향이 있음을 확인했다. Park(2020) 또한 숙달 접근 지향성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학습에 더욱 몰입하는 경향이 있어 학업적 적응 역량이 더 뛰어나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이런 점에서 대학생의 숙달 접근 지향성은 더 높은 학업 적응을 유발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대학생들이 학업적으로 대학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쟁력과 직결되는 학업 성취와 학업 관리 등으로 인해 수행이나 평가 상황에서 높은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경험하곤 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시험 불안이다(Oh & Choi, 2017). 시험 불안이란 불안의 한 유형으로 학습자가 중요한 것으로 지각하는 평가 상황에서 걱정이나 두려움과 같은 정서적 반응과 신경과민과 긴장감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두통이나 배앓이 등의 생리적 반응 경험을 의미한다(Park & Byun, 2021). 시험 불안이 높으면 자기의 학업적 능력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게 되고, 학습 동기 수준을 감소시키기도 하며, 시험 전 학습 수행을 방해하며, 시험 중에는 집중을 저해하는 등 다양한 차원에서 학업 적응을 어렵게 만든다(Kim & Choi, 2017; Lee & Seo, 2022). 이런 점에서 시험 불안은 대학생의 학업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고 학업 성취와 적응을 저해하는 중요 요인 중 하나로 인식되며, 학업 적응 뿐 아니라 학교생활의 전반적 적응에 대한 논의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실제 대학생의 시험 불안이 학업 적응에 미치는 영향 요인임이 다수의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즉 학업적 성취 정도에 관한 확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활용되는 주요 평가 방법인 시험은 학생들의 불안을 유발하게 되며, 이는 결과와 무관하게 학업적인 적응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Oh & Choi, 2017; Ryu & Lee, 2017). 가령 Kim & Choi(2017)는 불안 경향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학업 수행에 있어 부적응적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했고, Kim & Kang(2020)도 실패에 대한 공포감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학생으로서의 자기에 대한 평가를 부정적으로 한다고 했다. Park & Byun(2021)은 시험 불안과 전공 만족 및 적응간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했고, Moon(2021), 그리고 Lee & Seo(2022)의 연구에서도 평가에 대한 염려가 크고 실패에 대한 공포감을 더 크게 느끼는 대학생일수록 학업적 측면에서의 부적응적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하였다. 즉 대학생이 시험이나 평가 장면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등을 더 많이 할수록 학업 수행이나 몰입을 방해하고, 나아가 전공 만족 등과 같은 학업 적응을 방해하는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이 학업적으로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함으로써 의미 있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논의에서 시험 불안의 수준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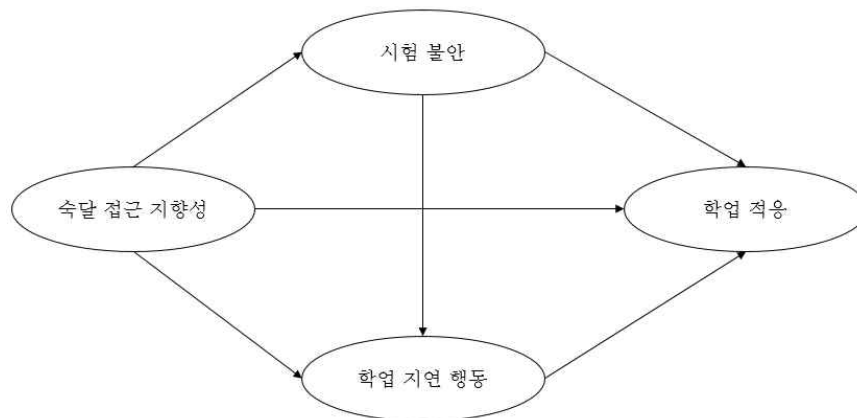
한편, 학습에 대한 몰입이나 적응적 수행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최근 시험 준비나 과제를 제시간에 시작하지 못하고 미루거나, 충분히 일찍 시작했음에도 제시간에 완료하지 못하는

것처럼 공부, 시험, 과제, 수업 참여 등을 최대한 마지막까지 미루는 행동인 학업 지연 행동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Park, 2020; Steel, 2007). 학업 지연 행동은 단순히 당면한 과제나 시험을 제대로 이행 및 준비하지 못하는 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학업 수행이나 적응상 문제를 파생할 수 있다(Kim & Choi, 2017; Moon, 2023). 학업 지연 행동은 학습자의 스트레스, 불안감 등을 증가하게 만들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하면 자기 효능감이나 자기 통제감, 자존감 등을 감소하게 만들어 자기 능력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게 만든다(Moon, 2021). 학업 수행 관련해서는 수업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고, 학업 성적을 저조하게 만들어 결국 수강 철회나 졸업 지연 등과 같은 학업 적응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동하게 된다(Closson & Boutilier, 2017; Kim & Jeon, 2014). 이런 점에서 학업 지연 행동은 대학생의 학업 적응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 학업 지연 행동과 대학생의 학업 성취나 적응 등이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했던 연구가 다수 존재하는데, 이러한 연구에서는 학업적 수행 과정에서 착수를 미루거나 완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향이 높은 학습자일수록 학업 적응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Lee & Seo, 2022; Park & Park, 2020). 예컨대, Kim & Jeon(2014)은 원격대학생의 학업 지연 행동은 학업 성취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Park(2020)은 학업 지연 행동을 많이 할수록 학습몰입에 방해받을 수 있음을 보고했으며, Park & Park(2020)의 연구에서도 대학생이 학업 지연을 더욱 능동적으로 할수록 대학 생활 적응력이 감소하며 특히 학업 적응 측면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하였다. Yoon et al.(2021)은 학업 지연을 더 많이 하는 대학생일수록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진다고 하였다. Moon & Jo(2023)는 대학생의 학업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제 수행이나 시험 준비 시 이를 지연하고 미루는 행동을 되도록 지양하도록 돕는 것의 중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즉 대학생이 학업적 수행 시 이를 지연하는 경향이 높거나 그러한 행동을 많이 할수록 제대로 된 학업적 성취를 얻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 학업 적응에 실패하게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학생의 학업 지연 행동의 정도는 대학 생활에서의 학업 적응에 대한 논의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학업 적응에 대한 논의를 위해 숙달 접근 지향성, 시험 불안, 학업 지연 행동이 학업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때 숙달 접근 지향성이 학업 적응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시험 불안과 학업 지연 행동의 순차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모형의 설정은 숙달 접근 지향성이 높을수록 시험이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한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은 경향이 있음을 확인했던 연구 결과(Kim & Kang, 2020; Oh et al., 2022), 시험 불안이나 수행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학업적으로 지연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경향성이 뚜렷함을 확

인했던 연구 결과(Kim & Choi, 2017; Lee & Seo, 2022; Moon, 2021), 그리고 학업 지연 행동을 더 많이 하는 학습자들일수록 학업적으로 더 높은 적응력을 가질 수 있음을 보고했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한다(Clinciu & Cazan, 2014; Park, 2020; Yoon et al., 2021).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숙달 목표 지향성은 직접적으로 대학생의 학업 적응력을 높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학습 동기로부터 출발한 긍정성은 실제 학업 수행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시험이나 평가에 대한 불안을 감경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불안의 감소는 수행에 관여하는 정서적 안정과 자신감을 증진함으로써 과제나 시험 준비에 망설임 없이 매진하고 투신하도록 만드는 긍정적 연결 고리를 제공함으로써 결국 학업 적응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임을 예측하게 한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숙달 목표 지향성, 시험 불안, 학업 지연 행동, 학업 적응의 관계를 단편적으로만 확인했을 뿐 종합적으로 확인해 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숙달 목표 지향성이 높을수록 시험 불안이 낮아지고, 이렇게 낮아진 시험 불안에 따라 학업 지연 행동을 더 적게 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학업 적응이 증진할 것이라는 예측을 실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설정한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참조). 첫째, 숙달 접근 지향성, 시험 불안, 학업 지연 행동, 학업 적응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숙달 접근 지향성과 학업 적응의 관계에서 시험 불안과 학업 지연 행동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셋째, 숙달 접근 지향성과 학업 적응의 관계에서 시험 불안과 학업 지연 행동의 순차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그림 1] 연구모형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특정 전공 분야의 깊이 있는 학문적 지식을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대학생의 학업 적응의 증진에 관한 논의를 위해 그 영향 요인을 살펴보기 위한 실증연구이다. 이에 고등 직업교육기관으로 분류되는 2~3년제 전문대학을 제외하여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연구목적에 더 부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서울 소재 3개 4년제 사립대학교 재학 중인 대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2023년 10월 한 달 동안 구글폼을 활용하여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함께 연구 윤리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경우에만 응답하도록 안내하였다. 전체 문항에 응답하지 않고 도중에 설문을 종료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10명의 자료를 제외하여 240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의 성별 구성은 남자 117명(48.8%), 여자 123명(51.2%)이었고, 연령은 21~26세 사이에 분포했고 평균 연령은 23.03세( $SD=1.58$ )였다. 학년 구성은 2학년 72명(30.0%), 3학년 84명(35.0%), 4학년 84명(35.0%)이었고, 전공 구성은 인문계열 113명(47.0%), 사회계열 59명(24.6%), 이공계열 53명(22.1%), 그리고 예·체능 계열 15명(6.3%)이었다.

### 2. 연구도구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타당성 및 신뢰성을 검증받은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주요 변인을 측정하였다. 먼저 독립변인 숙달 접근 지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Bak & Lee(2005)가 개발 및 타당화한 성취 목표 지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숙달 접근 지향성, 숙달 회피 지향성, 수행 접근 지향성, 수행 회피 지향성의 4개 유형을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목적에 맞도록 숙달 접근 지향성을 측정하는 9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확실히 아니다(1점)’에서 ‘확실히 그렇다(6점)’까지의 6점 Likert 식으로 응답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숙달 접근 지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이 연구에서 구한 신뢰도(Cronbach  $\alpha$ )는 .84였다.

다음으로 첫 번째 매개변인 시험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Benson & El-Zahhar(1994)가 개발 및 타당화한 시험 불안 척도를 사용했다. 이 검사는 시험에 대한 긴장 5문항, 시험에 대한 걱정 9문항, 신체 증상 5문항, 시험 무관 사고 4문항의 4개 하위요인 총 20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거의 느끼지 않는다(1점)’에서 ‘거의 항상 느낀다(4점)’까지의 4점 Likert 식으로 응답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시험 불안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 연구에서 구한 신뢰도(Cronbach  $\alpha$ )는 .89, 하위요인별로는 시험에 대한 긴장 .81, 시험에 대한 걱정 .79, 신체 증상 .75, 시험 무관 사고 .74였다.

두 번째 매개변인 학업 지연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Huh(2012)가 개발 및 타당화한 학업 착수-완수 지연 행동 척도를 사용했다. 이 검사는 학업 착수 지연 행동 11문항, 학업 완수 지연 행동 7문항의 2개 요인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식으로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착수 및 완수 지연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구한 신뢰도(Cronbach  $\alpha$ )는 .96, 하위요인별로는 학업 착수 지연 행동 .96, 학업 완수 지연 행동 .90이었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인 학업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Lee et al.(2018)이 개발 및 타당화한 간편 대학 생활 적응 척도 중 적응 수준을 측정하는 전공 만족 5문항과 학습 적응 6문항의 2개 요인 11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식으로 응답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현재 전공 중인 학업 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며, 이 연구에서 구한 신뢰도(Cronbach  $\alpha$ )는 .83, 하위요인별로는 전공 만족 .80, 학습 적응 .73이었다.

### 3. 분석방법

자료는 SPSS 26.0 프로그램 및 PROCESS Macro 4.2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대학생의 학업 적응과 숙달 목표 지향성의 관계에서 시험 불안과 학업 지연 행동의 순차 매개효과 모형을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분석했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빈도 분석을 수행했다. 둘째, 검사 별로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일치도인 Cronbach  $\alpha$ 를 산출했다. 셋째,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수행하여 응답 경향성 및 정상성 가정의 충족 여부를 확인했다. 넷째, 주요 변인 간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적률상관분석을 수행했다. 다섯째, 학습 적응과 숙달 목표 지향성의 관계에서 시험 불안과 학업 지연 행동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Macro Model 4로 분석했다. 여섯째, 학습 적응과 숙달 목표 지향성의 관계에서 시험 불안과 학업 지연 행동을 순서대로 투입하는 순차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Macro Model 6으로 분석했다. 모든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으로 검증하였고, 이때 재추출한 표본 수는 5,000개이며 간접효과 계수는 95% 신뢰수준에서 확인했다.

### Ⅲ. 연구결과 및 해석

#### 1. 기술통계 및 상관 분석 결과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및 변인 간 상관 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먼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숙달 접근 지향성은 6점 기준 평균 4.06( $SD=.74$ )으로 중간보다 높았고, 시험 불안은 4점 기준 평균 1.78( $SD=.46$ )로 중간 정도 수준이었다. 학업 지연 행동은 5점 기준 평균 2.77( $SD=.98$ )로 중간 정도 수준이었고, 학업 적응은 5점 기준 평균 3.76( $SD=.65$ )으로 중간보다 높았다. 왜도는 -.33에서 .72 사이, 첨도는 -.84에서 .13 사이에 분포하여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고 있었다.

주요 변인 간 상관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살펴보면, 숙달 접근 지향성은 시험 불안( $r=-.33, p<.01$ ), 학업 지연 행동( $r=-.35, p<.01$ )과 부적으로 유의하게 상관되었고, 학업 적응과는 정적으로 유의하게 상관되었다( $r=.44, p<.01$ ). 즉 숙달 접근 지향성이 높으면 시험 불안과 학업 지연 행동은 낮아지고 학업 적응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시험 불안은 학업 지연 행동( $r=.39, p<.01$ )과 정적으로 유의하게 상관되었으며 학업 적응과는 부적으로 유의하게 상관되었다( $r=-.52, p<.01$ ). 이는 시험 불안이 높을수록 학업 지연 행동을 더 많이 하고 학업 적응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학업 지연 행동은 학업 적응과 유의하게 부적으로 상관되어( $r=-.50, p<.01$ ), 학업 지연 행동을 많이 할수록 학업 적응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기술통계 및 주요 변인 간 상관

변인	1	2	3	4
1. 숙달 접근 지향성	1			
2. 시험 불안	-.33**	1		
3. 학업 지연 행동	-.35**	.39**	1	
4. 학업 적응	.44**	-.52**	-.50**	1
평균	4.06	1.78	2.77	3.76
표준편차	.74	.46	.98	.65
왜도	.04	.71	.11	-.33
첨도	-.22	-.17	-.84	.13

\*\*  $p<.01$

## 2. 매개효과 분석결과

숙달 접근 지향성과 학업 적응의 관계에서 시험 불안과 학업 지연 행동의 순차 매개효과 분석에 앞서, 두 매개변인인 시험 불안과 학업 지연 행동 각각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Macro Model 4로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독립변인 숙달 접근 지향성이 첫 번째 매개변인 시험 불안에 미치는 부적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beta = -.33, p < .001$ ), 설명량은 11%였다. 독립변인 숙달 접근 지향성이 두 번째 매개변인 학업 지연 행동에 미치는 부적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beta = .46, p < .001$ ), 설명량은 12%였다. 독립변인 숙달 접근 지향성을 통제된 상태에서 시험 불안이 종속변인 학업 적응에 미치는 부적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beta = -.60, p < .001$ ), 학업 지연 행동이 미치는 부적 영향력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beta = -.23, p < .001$ ). 독립변인 숙달 접근 지향성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여전히 유의하였으며( $\beta = .21, p < .001$ ), 이때 설명량은 48%였다. 즉 숙달 접근 지향성과 학업 적응의 관계에서 시험 불안과 학업 지연 행동의 간접효과는 부분 매개효과이며, 시험 불안이 학업 지연 행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시험 불안의 간접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 .07, 상한값 .18, 학업 지연 행동의 간접효과는 하한값 .05, 상한값 .17로 구간 내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표 2> 숙달 접근 지향성과 학업 적응의 관계에서 시험 불안과 학업 지연 행동의 매개효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beta$	<i>t</i>	<i>F</i>	<i>R</i> <sup>2</sup>
1	숙달 접근 지향성	시험 불안	-.21	.04	-.33	-5.48***	29.97***	.11
2	숙달 접근 지향성	학업 지연 행동	-.46	.08	-.35	-5.67***	32.17***	.12
	숙달 접근 지향성		.21	.05	.21	4.14***		
3	시험 불안	학업 적응	-.60	.08	-.38	-7.26***	72.23***	.48
	학업 지연 행동		-.23	.04	-.31	-5.94***		

\*\*\*  $p < .001$

<표 3>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경로	B	SE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시험 불안의 간접효과	.12	.03	.07	.18
학업 지연 행동의 간접효과	.10	.03	.05	.17
총 효과	.22	.04	.16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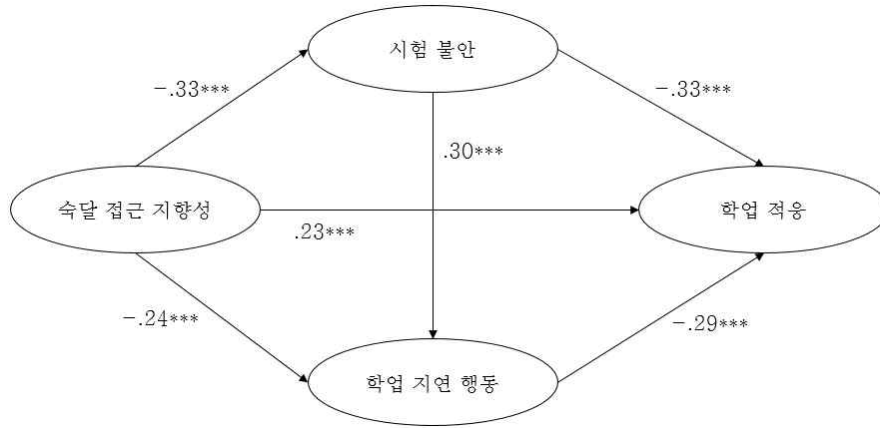
### 3. 순차 매개효과 분석결과

숙달 접근 지향성과 학업 적응의 관계에서 시험 불안과 학업 지연 행동을 순서대로 투입한 순차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Macro Model 6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4> 및 [그림 2]와 같다. 독립변인 숙달 접근 지향성이 첫 번째 매개변인 시험 불안에 미치는 부적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beta=-.33, p<.001$ ), 설명량은 11%였다. 독립변인 숙달 접근 지향성이 두 번째 매개변인 학업 지연 행동에 미치는 부적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beta=.24, p<.001$ ), 첫 번째 매개변인 시험 불안이 미치는 정적 영향력( $\beta=.30, p<.001$ )도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설명량은 20%였다. 종속변인 학업 적응에 대한 독립변인 숙달 접근 지향성의 정적 영향력( $\beta=.23, p<.001$ )은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첫 번째 매개변인 시험 불안의 부적 영향력( $\beta=-.33, p<.001$ )과 두 번째 매개변인 학업 지연 행동의 부적 영향력( $\beta=-.29, p<.001$ )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때 학업 적응에 대한 설명량은 42%였다. 즉, 숙달 접근 지향성이 높을수록 시험 불안이 감소하고, 감소한 시험 불안은 학업 지연 행동을 줄이며, 결과적으로 학업 적응을 증진하도록 만드는 순차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숙달 접근 지향성과 학업 적응의 관계에서 시험 불안과 학업 지연 행동의 순차 매개효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beta$	$t$	$F$	$R^2$
1	숙달 접근 지향성	시험 불안	-.21	.04	-.33	-5.48***	29.97***	.11
2	숙달 접근 지향성	학업 지연 행동	-.32	.08	-.24	-3.95***	29.79***	.20
	시험 불안		.65	.13	.30	4.93***		
3	숙달 접근 지향성	학업 적응	.20	.05	.23	4.19***	56.81***	.42
	시험 불안		-.47	.08	-.33	-6.04***		
	학업 지연 행동		-.19	.04	-.29	-5.24***		

\*\*\* $p<.001$



[그림 2] 순차 매개효과 경로 모형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95% 신뢰구간에서 시험 불안의 간접효과는 하한값 .06, 상한값 .15였고, 학업 지연 행동의 간접효과는 하한값 .03, 상한값 .11이었다. 시험 불안과 학업 지연 행동의 순차 간접효과는 하한값 .01, 상한값 .04로 나타나 모든 간접효과의 구간 내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다. 이에 숙달 접근 지향성과 학업 적응의 관계에서 시험 불안과 학업 지연 행동의 순차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확인되었다.

<표 5>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경로	B	SE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시험 불안의 간접효과	.10	.02	.06	.15
학업 지연 행동의 간접효과	.06	.02	.03	.11
시험 불안과 학업 지연 행동의 간접효과	.03	.01	.01	.04
총 효과	.19	.03	.12	.25

####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대학생의 숙달 접근 지향성과 학업 적응의 관계에서 시험 불안과 학업 지연 행동의 순차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24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와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시험 불안은 숙달 접근 지향성과 학업 적응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였다. 즉 숙달 접근 지향성이 높은 대학생은 시험 불안이 감소하여 학업 적응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성취 목표 지향성이 대학 생활 적응과 유의하게 관련됨을 확인한 Kim & Cho(2013)의 연구, 숙달 목표 지향성이 높은 대학생이 실패에 대한 공포를 적게 느낀다고 보고한 Kim & Kang(2020)의 연구, 숙달 접근 목표와 실패 염려가 학업 수행과 유의미하게 관련됨을 확인했던 Kim & Choi(2017)의 연구 등과 맥을 같이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대학생이 학업 과정에서의 목표를 자기의 진보와 통달에 두는 경우 타인 지향적 평가보다는 자기 지향적 평가를 추구하게 되고, 따라서 시험은 이러한 자신의 발전 정도를 평가하는 도구로 인식하게 되어 불안이나 공포를 적게 느끼게 됨으로써 학업적 적응 수준이 높아지는 메커니즘이 형성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숙달을 목표로 가진 학습자는 학습 결과로써 외적 보상보다 내적인 역량의 향상에 중점을 두며, 시험이나 과제에서의 부정적 피드백을 받거나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학습 전략을 구축하는 등 노력을 더욱 강화한다(Noh et al., 2021). 이런 점에서 높은 시험 불안으로 인해 학업 적응에 방해받는 대학생의 경우 시험 불안을 직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불안을 감경하고 내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학습 목표와 과정에 대한 내재적 가치를 부여하는 숙달 접근 목표를 설정하도록 독려하여 시험이나 평가에 대한 의미를 자기 지향적 방향으로 새로이 구축할 수 있는 중재 방법이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사료한다.

둘째, 대학생의 학업 지연 행동은 숙달 접근 지향성과 학업 적응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였다. 즉 숙달 목표 지향성이 강할수록 학업 지연 행동을 더 적게 하여 결과적으로 학업 적응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대학생의 성취 목표 지향성의 유형은 학업 지연 행동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한 Kim & Choi(2017)의 연구, 학업 지연 행동은 대학 생활 적응을 방해한다고 보았던 Yoon et al.(2021)의 연구, 숙달 접근 지향성이 높을수록 학업 지연 행동을 적게 한다고 보고했던 Moon(2023)의 연구 등과 유사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이 학습에 대한 내재적 동기를 기반으로 한 자발적 참여 의도가 낮은 경우 주어진 과제 수행이나 시험 준비에 의미와 재미, 나아가 학습 책임감을 발현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미루거나 완결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 행동을 보이게 되며, 결국 학업적으로 대학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는 메커니즘이 존재함을 확인케 한다. 학업 지연 행동은 수행 결과에 대한 부담과 걱정 또는 노력 부족 등에 대한 자기 보호 차원에서 사용하는 자기 구실 만들기(self-handicapping)의 한 방법으로 이해된다(Moon, 2023). 즉 자기의 무능감에 대한 걱정을 반영하는 행동화 경향이다. 이런 점에서 자기 발전이라는 긍정적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노력을 촉진하게 만드는 숙달 접근 지향성을 가지도록 학습 동기화를 증진하는 것은 무능감에

대한 자기 보호 측면에서 과제 수행이나 시험 준비의 착수나 완수를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학업 지연 행동을 감경함으로써 대학생의 학업 적응 증진을 위한 핵심 자원이자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숙달 접근 지향성과 학업 적응의 관계에서 시험 불안과 학업 지연 행동이 순서대로 투입된 순차 매개효과 또한 유의하여, 숙달 접근 지향성이 높을수록 시험 불안이 낮아지고, 낮아진 시험 불안은 학업 지연 행동을 억제하여 결과적으로 학업 적응이 증진하는 경로가 유의미함이 실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시험 불안이 클수록 학업 지연 행동이 증가함을 보고했던 Moon(2021)의 연구, 실패 공포와 학업 지연 행동의 유의미한 관련성을 확인했던 Lee & Seo(2022)의 연구, 학습 동기와 학업 지연이 대학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던 Park & Park(2020)의 연구, 학업 지연과 대학생의 학업 적응의 유의미한 관련성을 확인한 Yoon et al.(2021)의 연구 등과 맥을 같이 한다. 이는 대학생의 학업 적응은 학습자가 얼마나 학습과 배움 그 자체에 의미를 두는 태도와 동기를 가졌는지에로부터 출발함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증가한 숙달 접근 지향성은 자기 발전의 긍정적 가능성에 초점을 두어 시험에서의 실패나 부정적 피드백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긴장이나 두려움을 더 적게 느끼게 만들고, 이렇게 감소한 시험 불안은 실패에 대한 자기 보호 차원의 손상 전략인 학업 지연 행동이 감소하도록 돕는 과정을 거쳐 학업 적응력이 더욱 증진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학업 적응은 학습자로서 이들이 가진 동기, 정서, 행동적 측면의 다양한 개인 내적 측면이 종합적으로 결부하여 도출된 결과로 결론지을 수 있다.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전환기로 사회로 나가기 위한 준비의 기간을 보내게 된다. 이런 점에서 대학 생활 적응은 대학생에 관한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이며, 특히 학업적 측면에서의 적응은 대학 생활 적응의 핵심 요소로 간주해 왔다. 대학생이 학업 적응을 통해 직업인이자 전문인으로서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것은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국가 및 사회적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의 중요 과제인 학업 적응에 대한 논의는 이들을 무엇보다 학습자의 관점에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즉 대학생의 학업 그 자체에 대하여 가지는 숙달 지향적 동기의 증진, 시험과 같은 평가 상황에 대한 부담과 걱정 등 부정적 정서의 감경, 그리고 결과에 대한 불안에 대해 건강하지 못한 자기 보호 전략적 행동 억제 등 학업적 측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의 특성인 동기, 정서, 행동의 전방위적 측면에 관한 관심과 중재 노력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의 결과는 전통적으로 성취 목표 지향성의 유형 중 가장 이상적인 학습 동기로 여겨져 왔던 숙달 접근 지향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치열한 입시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초·중·고등학교 시기를 거쳐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그러한 경

쟁적 학습 환경은 사라지지 않는다. 대학에 진학한 후에는 진로와 취업을 위해 다시금 학점과 소위 스펙 쌓기 경쟁에 돌입하여 치열하게 겨루어야 하는 것이 작금의 우리나라 대학생이 처한 현실이다. 취업을 위한 경쟁과 더 나은 수행만을 요구하는 이러한 대학의 학업 환경에서 자기 전공이나 관심 분야에서 수준 높은 학문적 탐구와 지식의 함양을 추구하는 숙달 학습 동기를 촉발하고 유지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는 숙달을 지향하는 대학생들일수록 평가 상황에서 더 담대한 경향을 보이며, 주어진 과제를 피하지 않는 책임감으로 끈기 있게 노력함으로써 더 적응적인 학업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설사 경쟁적 구도에 놓여 평가 결과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의 지식적 진보나 수행 향상 그 자체를 학습의 주요 목표로 삼고자 하는 내적 원동력이야말로 학습자의 경쟁력을 증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임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이러한 이 연구의 결론을 기반으로 향후 대학생들이 대학 생활에서 더욱 적응적으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절대 평가 과목의 확대, 교과목 관련한 자율적 주제 선택 프로젝트 수행, 학생 의견을 반영한 교과목 개설 및 운영 등과 같이 수업 과정 및 평가 자체가 숙달 지향적 교육적 환경으로의 변화가 시도 및 확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과 그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대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으나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만이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지역 및 범주 측면에서 한계를 가진다. 추후 연구에서는 표집 지역을 확대하고, 2-3년제 대학까지 포함함으로써 일반화 증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생의 학업 적응에 대한 영향 요인은 다양할 것이나 이 연구에서는 개인 내적 특성만을 포함하였다. 한 개인의 적응 수준은 외부 환경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추후 개인 외적 요인의 영향력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Bak, B. G., & Lee, J. U. (200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2×2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scal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9*(1), 327-352. ☞ 국문: 박병기, 이종욱(2005). 2×2 성취목표지향성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19*(1), 327-352.
- Benson, J., & El-Zahhar, N. (1994). Further refinement and validation of the revised test anxiety sca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3), 203-221. <https://doi.org/10.1080/10705519409539975>
- Cho, S. H., Kim, S. M., & Hwang, J. S. (2020). A basic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cademic adaptation test tools for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eaching & Learning Research, 13*(1), 95-117. <https://dx.doi.org/10.23122/kactl.2020.13.1.005> ☞ 국문: 조선희, 김순미, 황정선(2020). 대학생 학업적응도 검사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대학 교수-학습 연구, 13*(1), 95-117.
- Cliniciu, A. I., & Cazan, A. M. (2014). Academic adjustment questionnaire for the university students.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27*(0), 655-660. <https://doi.org/10.1016/j.sbspro.2014.03.330>
- Closson, L. M., & Boutilier, R. R. (2017). Perfectionism, academic engagement, and procrastination among undergraduates: The moderating role of honors student status.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57*(0), 157-162. <https://doi.org/10.1016/j.lindif.2017.04.010>
- Jo, H. Y. (2023).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department, university satisfaction, and adaptation to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4*(5), 250-259. <https://dx.doi.org/10.5762/KAIS.2023.24.5.250> ☞ 국문: 조혜영(2023).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소속학과 및 대학 만족도, 대학생활 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4*(5), 250-259.
- Kim, A. R., & Kang, J. R. (2020). The mediating effect of fear of failure in the relationship of college students'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1), 93-115. <http://dx.doi.org/10.22251/jlcci.2020.20.11.93> ☞ 국문: 김아림, 강진령(2020). 대학생의 성취목표지향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실패공포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1), 93-115.
- Kim, H. J., & Jeon, J. H. (2014). The differences of cyber university students' self-efficacy,

-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by their level of academic procrastination behaviors and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Lifelong Society*, 1A(2), 209-228. <https://doi.org/10.26857/JLLS.2014.05.10.2.209> ☞ 국문: 김현진, 전종희(2014). 원격대학 성인학습자의 학업 지연행동과 학업성취도에 대한 자아효능감과 성취목표지향성의 관계 분석. *평생학습사회*, 10(2), 209-228.
- Kim, N. J., & Choi, W. Y. (2017). The influence of perfectionism, anxiety and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on academic procrastination. *Youth Facilities and Environment*, 15(1), 157-164. ☞ 국문: 김남진, 최용용(2017). 완벽주의, 불안 및 성취목표지향성이 대학생의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15(1), 157-164.
- Kim, S. Y., & Cho, H. I.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basic need satisfaction, academic achievement, and adjustment of teachers'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1A(2), 307-328. <https://dx.doi.org/10.16983/kjsp.2013.10.2.307> ☞ 국문: 김수연, 조한익(2013). 사범계열 대학생들의 성취목표지향성, 기본욕구만족, 학업성취도 및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0(2), 307-328.
- Lee, D. K., & Seo, S. G. (2022). The relationship between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 of fear of failure and cognitive avoidance.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3A(2), 151-171. <https://doi.org/10.35151/kyci.2022.30.2.007> ☞ 국문: 이도경, 서수균(2022).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 실패공포와 인지적 회피의 순차적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30(2), 151-171.
- Lee, J. H., Yun, M. H., Kang, C. W., Ko, M. N., Kang, J. I., Lee, J. H., Cho, Y. J., Kim, M. H., & Kim, B. S. (2018).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feasibility study of DEU GRIT scale for successful college life adaptation: Focused on the college freshmen.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A(2), 983-1006. <https://doi.org/10.37727/jkdas.2018.20.2.983> ☞ 국문: 이정희, 윤명희, 강창완, 고미나, 강정임, 이진현, 조영주, 김민희, 김보성(2018). 성공적인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DEU GRIT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대학 신입생을 중심으로.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2), 983-1006.
- McGregor, H. A., & Elliot, A. J. (2002). Achievement goals as predictors of achievement-relevant processes prior to task engag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4(2), 381-395. <https://doi.org/10.1037/0022-0663.94.2.381>
- Moon, H. J. (2021).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self-oriented perfectionism, test anxiety, and intolerance of uncertainty on academic initiation-completion procrastination. *The*

-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1, 12(5), 1507-1520. <https://dx.doi.org/10.22143/HSS21.12.5.106> ㉞ 국문: 문화진(2021). 대학생의 자기지향 완벽주의, 시험불안,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학업 착수-완수 지연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12(5), 1507-1520.
- Moon, H. J. (2023). The mediating effect of perfectionis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academic initiation-completion procrastination in undergraduate students.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13(1), 69-92. <https://doi.org/10.34226/gcl.2023.13.1.69> ㉞ 국문: 문화진(2023). 대학생의 성취 목표 지향성과 학업적 착수-완수 지연 행동의 관계에서 완벽주의 성향의 매개효과.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13(1), 69-92.
- Moon, J. Y., & Jo, M. G. (2023). Applying machine learning-based models to prevent University student dropouts.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38(2), 289-313. <http://dx.doi.org/10.31158/JEEV.2023.36.2.289> ㉞ 국문: 문지영, 조명근(2023). 대학생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기계학습 기반 모형 탐색. *교육평가연구*, 36(2), 289-313.
- Noh, S. R., Moon, S. H., & Bae, S. A. (2021). Future time perspective and academic engagement as sequential mediato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stery goal orientation and academic burnou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8(6), 141-169. <http://dx.doi.org/10.21509/KJYS.2021.06.28.6.141> ㉞ 국문: 노수림, 문선현, 배성아(2021). 대학생의 숙달목표지향성과 학업소진의 관계에서 미래시간조망과 학업열의의 이중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8(6), 141-169.
- Oh, C. G., & Choi, H. Y. (2017). The influence of test anxiety on academic achievement: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ompassion and failure tolera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4(10), 483-511. <http://dx.doi.org/10.21509/KJYS.2017.10.24.10.485> ㉞ 국문: 오충광, 최혜윤(2017). 대학생의 시험불안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자비와 실패내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4(10), 483-511.
- Oh, S. J., An, J. H., & Yang, S. J. (2022). The mediating effects of grit, fear of failure and goal orient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oal perception characteristics and failure tolerance.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19(1), 149-168. <http://dx.doi.org/10.34244/JFOYS.2022.19.1.7> ㉞ 국문: 오수진, 안주현, 양수진(2022). 성인진입기 대학생의 목표인식특성과 실패내성의 관계에서 그릿(Grit), 실패공포, 숙달접근목표의 매개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19(1), 149-168.
- Park, H. J., & Byun, E. K. (2021). Effect of perceived stress, self esteem, major satisfaction on the test anxiet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7(1), 194-201. <http://dx.doi.org/10.17703/JCCT.2021.7.1.194> ㉞ 국문: 박효진,

- 변은경(2021). 간호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가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문화기술의 융합**, 7(1), 194-201.
- Park, H. J., & Park, S. H. (2020). Clusters of perfectionism and their differences in active academic procrastination and adaptation to colleg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6), 431-456. <http://dx.doi.org/10.22251/jlcci.2020.20.6.431>  
☞ 국문: 박효진, 박성희(2020). 완벽주의 군집에 따른 능동적 학업 지연 및 대학생활적응의 차이.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6), 431-456.
- Park, Y. S. (2020).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learning flow as improvement factors in academic procrastination behavior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 359-379. <http://dx.doi.org/10.22251/jlcci.2020.20.1.359>  
☞ 국문: 박영순(2020). 전문대학생의 학업지연행동 개선요인으로서의 성취목표지향성과 학습몰입.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 359-379.
- Ryu, Y. S., & Lee, A. R. (2017). The effects on academic procrastination of college student from th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Verification on the mediating effects of irrational belief.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25(2), 21-41. <http://dx.doi.org/10.18230/tjye.2017.25.2.21>  
☞ 국문: 류윤선, 이아라(2017).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대학생의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비합리적 신념의 매개효과 검증. **열린교육연구**, 25(2), 21-41.
- Steel, P. (2007). The nature of procrastination: A meta-analytic and theoretical review of quintessential self-regulatory failure. *Psychological Bulletin*, 133(1), 65-94. <http://doi.org/10.1037/0033-2909.133.1.65>
- Yoon, M. H., Park, H. J., & Ju, H. J. (2021). A structural relationship of perfectionism, self-efficacy, academic procrastination, and adaptation to college lif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13), 321-334.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13.321>  
☞ 국문: 윤미현, 박효진, 주현정(2021). 완벽주의, 자기효능감, 학업지연, 대학생활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규명.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3), 321-334.
- Yu, Q., Oh, I. S., & Han, H. W. (2022). Mediated effects of self-resilience,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university life adaptation among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The SNU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31(3), 59-83. <http://dx.doi.org/10.54346/sjer.2022.31.3.59>  
☞ 국문: 유청린, 오인수, 한혜원(2022). 중국 유학생의 학업적 성취목표지향성이 대학생 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의사소통능력 및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The SNU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31(3), 59-83.